

# 구윤철 부총리,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소통 본격화

## -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 개최 -

- 재경부, 반도체,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분야 등 전략산업 관련 민간전문가로 「전략경제자문단」 구성
- 지금은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 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적의 정책패키지 모색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4.1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26.4.13.(월) 15:00~16:30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정대희 KDI 연구부원장, 이두희 산업연구원 연구부원장(당연직),  
김준하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원장(AI·로보틱스 분과위원장),  
윤미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바이오 분과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에너지 분과위원장),  
손대권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前 군수사령관(방산 분과위원장),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우주·양자 분과위원장),  
김성수 연세대 공과대학 특임교수(총괄간사),  
차정훈 前 (주)카이스트홀딩스 대표이사(총괄간사),  
정성훈 KDI 공급망연구팀장,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발제)

재정경제부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자문단은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반도체,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야의 기업, 학계, 국책연 민간 전문가 등 47인으로 구성된다.

\* 「AI 3대 강국」(2025), 「AI, 신들의 전쟁」(2024), 「반도체 주권국가」(2024) 저술

구 부총리는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주요국들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평가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되어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세제 지원, 인재 육성, 공공수요 창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산업별 특성에 맞게 배분되는 최적의 정책패키지(policy mix)를 찾아나가겠다”면서, “자문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보다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당부하였다.

박영선 위원장은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로 시작된 ‘인식(Perception) AI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난 2026년 올해, AI 산업은 공학도 중심의 ‘AI 모델 개발시대’에서 24시간 디지털 AI 비서가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 최고의 제조 AI 혁신국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의 중추국가, AI 융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AI 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고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각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AI 전환 등 전략산업 분야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각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분야별 주요 발언 >**

- ▶ **(AI)** AI를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기반으로 보고 제조·서비스·공공 영역 전반의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빠르게 연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 **(바이오)** AI 기반 R&D 혁신 가속화 및 핵심인력 양성, 과감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등 전략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 **(에너지)** 에너지/전력의 생산-수송-저장-소비 등 전 영역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육성이 중요
- ▶ **(방산)** 방산수출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법·제도적 정책지원, 대기업(체계기업)-중소·중견기업(협력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필요
- ▶ **(우주·양자)**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양자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투자가 필요
- ▶ **(반도체)**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핵심기술과 산업생태계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진흥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함

재정경제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략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혁신성장실 전략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양윤영 (044-215-4930)
		담당자	사무관	송현지 (song15th@korea.kr)

